

## 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六)

李相殷

思惟는 僅僅히 外物의 接手 뿐이 아니요, 同時에 創造的... 自動的의 作用이다. 直觀의 形式은 時空이요, 思維의 形式은 概念이다. 直觀은 반듯이 概念이란 틀 속에 집어 넣어야 理解 할 수 잇는 것이요, 概念은 반듯이 直觀이라는 材料를 엮어야 비로소 內容이 잇는 것이다. 悟性 自身은 무엇을 直觀 할 수 업고 感性 自身은 무엇을 思維 할 수 업다. 반듯이 二者가 合作한 後이러야 知論이 可能한 것이다. 感性의 直觀 方式에 對하야는 우에 이미 말하얏스니 이제 悟性의 思維 方式에 對하야 말하러 한다.

『불탄다』·『물 뜨겁다』는 二個의 獨立的 知覺을 悟性은 엮던 (因果的)方式으로서 그것을 連結식혀 드되여 『불타기 때문에 뜨겁다』는 判斷을 내리었다. 이런 連結의 方式- 卽 思維의 方式을 칸트는 純粹概念이라 하며 或은 簡單히 範疇라고 한다. 『純粹』라 한 것은 그 方式이 經驗으로부터 엮은 것이 아니요, 悟性 自身이 本來부터 갖춰 가지고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吾人의 思維하는 方式은 모두 몇가지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範疇는 모두 몇치나 되는가? 이것을 알기 爲하야 칸트는 만저 傳來의 形式 論理學에 就하야 判斷이 모두 몇 種類인가를 考察하엿다. 왜 그러나하면 思維는 卽 判斷이니 思維의 方式은 『卽 判斷의 形式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思維의 方式이 모두 무엇 무엇이며 .....(이하 원문해독불가)..... 자면 直接判斷의 方式이 □□□ 무엇이며 몇 種類가 잇는지를 알면 될 것이다. 그러면 論理學 上의 判斷으로 모두 몇 種類인가? 칸트는 十二種이 잇다한다. 그 十二種은 四組로 分하엿스니

- (一) 數量에 對한 判斷 全體的
- 個別的
- 單□的

- (二) 性質에 對한 判斷 肯定的  
否定的  
無限的
- (三) 關係에 對한 判斷 直管的  
假定的  
選擇的
- (四) 情狀에 對한 判斷 □次的  
實然的  
必然的

이 十二群 判斷에 根據하여 칸트는 以下 十二種의 範疇을 차저 내었다. 그 도 亦是 四組로 난우엇스니

- (一) 數量的 範疇 單一  
多數  
□計
- (二) 性質的 範疇 實任  
否定  
限制

\*\*\*원문 훼손\*\*\*

- (四) □狀的 ……(이하 원문해독불가)…… 存在  
必然偶然

이 十二 範疇는 悟性의 本有한 것으로서 事物을 思維하는 方式의 全□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發生한다. 範疇는 純粹한 悟性 自身の 思維形式이라면 그것을 엇지 經驗的 事物에 應用 할 수 잇슬까? 다시 말하면 純粹히 精神的인 ( ) 範疇로서 어찌케 經驗的 客觀世界를 解釋 할 수 잇슬까? 이러케 하는 것이 可能한가? 안한가? 合理한가? 안한가? 可能하다면 그 根據가 어데 잇스며 合理하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가? 이 根據□□求하고 그 理由를 證明하는 것은 칸트의 『純粹理性 批判』中 가장 □要한 部分이다. 이 證明을 칸트는 範疇의 超越的 □□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의 證明은 엇더하였든가? 簡單히 말하면 그 證明은 範疇가 업시는 經驗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表明함에 잇섰다.